

종합·해설

남구 보선 전략공천

민주 공심위 결정... 후보 10명 난립 진통 예상

민주당 광주 남구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가 전략공천을 통해 선정된다.

민주당 공천심사위원회는 지난달 30일 회의를 갖고 오는 28일 실시되는 광주 남구 등 전국 8개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와 관련, 총남 천안을 지역을 제외한 7개 지역의 후보를 전략공천을 통해 선정하기로 하고 이를 최고위원회에 통보했다.

이에 따라 최고위원회는 이날 저녁 9시 간담회를 갖고 공심위가 결정된 사항에 대해 집중 논의하고 오는 2일 최종 인준할 방침이다.

중앙당 공심위원인 김동철 의원은 "이날 공심위 회의에서 천안을 보궐선거 후보 공천은 경선을 통해 선정하기로 결정했다"며 "그러나 광주 남

구 등 나머지 7개 지역은 전략공천을 통해 후보를 선정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어 "광주 남구 보궐선거 후보 공천은 광주시민과 남구민의 기대를 충족시킬 수 있는 후보를 공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다음 주부터 전략공천을 통한 후보 선출을 위해 예비 후보 및 입지자들에 대한 집중적인 검증에 나설 전망이다.

특히, 민주당은 지난 지방선거에서 후보 공천 과정의 각종 잡음으로 광주·전남지역의 반(反) 민주당 정서가 크게 고조됐다는 점을 감안, 지역 민심에 부합하는 후보 공천에 심혈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광주 남구 보궐선거의 경우, 예비 후보 및 입지자들이 10명 이상 난립한 반면 광주 민심에 부합하는 유력한 인물이 눈에 띄지 않는다는 점에서 최종 후보 결정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이와 관련, 민주당 지도부가 남구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 선정과 관련, '전문성을 갖춘 참신한 인사를 공천, 광주시민의 박수를 받는다'는 공감대를 형성했다는 점에서 전직 국회의원 출신 및 과거 정치인보다는 정치 신인이 공천을 받지 않느냐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일부 입지자들은 여론조사 등을 통한 공정한 경선이 배제된다면 무소속 출마도 불사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민주 주류-비주류 당 진로·쇼大 난타전

비주류 "당지도부 헌신 자세 없다" 정대표 등 맹공 주류 "새 기구 만들자는 건 당권 투쟁 포장한 기구"

차기 전당대회를 둘러싸고 갈등이 증폭된 민주당 주류와 비주류가 결국 정면충돌했다.

30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6·2 지방선거 평가와 당의 진로, 8월 전당대회 문제를 놓고 주류와 비주류 의원들이 난타전을 벌였으나 새

신 방안에 대한 총론을 모으진 못했다.

양측은 회의가 시작되자마자 공개 여부를 놓고 신경전을 벌였다. 이날 회의를 비공개로 하자는 의견이 나오자 비주류 측의 행동대장 격인 문학진의 의견이 "국가기밀도 아니고 우리 입장을 뚜렷하게 개

진하자"며 제동을 걸고 나섰다.

이에 주류와 비주류 의원들 간에 공방이 이어져 자 박지원 원내대표가 나서 직권으로 의원총회를 '공개'하기로 정지했다.

그동안 '반(反) 정세균'을 기치로 당 쇄신을 요구해온 비주류 측은 토론이 시작되자 정세균 대표를 향해 '독재자' 등의 격한 표현을 써가며 자심한 듯 비판을 쏟아냈다.

문학진 의원은 최근 정세균 대표가 비주류 측을 겨냥 "누구도 (지방선거) 성과를 폄해선 안 된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 "경험한 자세로 당의 제대로 된 살 길을 만들어가자는 것"이라며 정 대표를 향해 "오버하지 말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정동영 의원은 "국민이 지방선거에서 우리에게 주문한 것은 담대한 진보의 길로 가라는 것"이라며 당내 쇄신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전개했다.

전정배 의원은 "제2의 창당을 할 시점인 만큼 변화와 쇄신을 위해서는 당내 '혁신논의기구'를 구성하자"고 주장했다.

이에 맞서 주류 측의 조정식 의원은 "전당대회는 적절한 시기에 준비기구를 준비하면 되고 지금은 7.28 재보선에 역량을 총결집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홍영표 의원은 "새로운 기구를 만들자는 것은 또 다른 당권투쟁을 포장한 기구에 불과하다"고 가세했다.

또한, 이석현 의원은 "7월 재·보선을 앞두고 지금 집단지도체제, 전당원투표제를 논의하면 내용으로 비칠 수 있다"며 "혁신위 설치와 지도체제 논의는 재·보선이 끝나고 해도 늦지 않다"고 신중한 입장을 나타냈다.

비주류 측 의원들의 발언을 묵묵히 듣고 있던 정세균 대표는 "여러분이 말한 소수의견이 제대로 반영 안 된 점, 반성하고 임기 동안 반영하겠다"고 답답한 반응을 보였다.

이에 따라 극적인 계기가 마련되지 않는 한 오는 4일 비주류 연대 모임 성격인 쇄신 연대 출범과 함께 민주당 주류와 비주류의 갈등은 더욱 깊어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지난달 30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쇄신연대 문학진(오른쪽) 의원이 발언을 하기 위해 단상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오 서울 은평을 재선거 출사표

여권 역학구도 변화올 듯

이재오 국민권익위원장이 지난달 30일 국민권익위원장을 사퇴, 오는 7월28일 치러지는 서울 은평을 국회의원 재선거에 출마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날 경찰청 대강당에서 열린 특강에서 "지난 9개월이 아침에 출근했다가 퇴근하는 기분이다. 매우 짧게 느껴진다"며 "입기를 채우지 못하고 떠나게 돼 매우 미안하다"고 사퇴 의사를 분명히 했다.

이 위원장은 이어 "오늘 이 자리가

내 개인의 정치적 목적이나 개인의 정치적 이유로 자리를 떠나는 것이 아니라 더욱 마음이 무겁다"면서 "내게 주어진 고난의 길을 내가 피할 수 없는 입장이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출마를 공식화한 것이다.

이 위원장은 1일 은평구 지역 사무실에서 재보선 출마를 공식 선언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예비후보로 등록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은평을 재선거는 이 위원장뿐만 아니라 친이(친이명박)계의 향후 진로에 중대 갈림길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친이계 좌장인 이 위원장이 기자회견 생활 경우 역경에 처한 친이계를 추스르고 난국을 헤쳐나가는 데 중심적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선(先) 국회 입성, 후(後) 역할 모색' 수순을 밟을 것이라는 게 정치권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이 위원장의 '여의도 복귀'는 당장 당내 향후 역학구도는 물론이거니와 멀게는 2012년 대선 레이스에도 상당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이번에도 또다시 낙마할 경우 정치적 생명마저 위협받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타임오프제 반대 노사 자율 결정을"

야 5당 정부 정면 비판

야 5당은 타임오프제(유급 근로시간 면제 제도) 시행을 하루 앞둔 지난달 30일 기자회견을 갖고 노조 전임자 임금 문제는 노사가 자율적으로 정할 일이라며 정부 정책을 정면 비판했다.

민주당·민주노동당·창조한국당·진보신당·국민참여당 등 야 5당 대표와 민주노총 김영훈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부가 노동기본권의 토대를 허무는 일에 앞장서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또 "개정된 노조법 부칙은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효력을 인정하고 있다"며 "노조법이 재개정되거나 노사정이 합의해 타임오프 한도를 다시 결정할 때까지 그동안 노사가 자율적으로 교섭한 결과를 존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야 5당은 앞으로 연대해 타

임오프제 폐해를 막기 위해 노조법을 재개정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정세균 대표는 "노사관계에서는 '자율'이 가장 바람직한데 정부가 타임오프제를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다"며 "정부의 노조 탄압이 정치 탄압으로 발전하는 현재 상황을 도저히 감내할 수 없다"고 말했다.

민노당 강기갑 대표는 "정부 여당은 선거 때만 되면 서민정당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선거가 끝나면 재벌정당으로 되돌아간다"며 "타임오프제는 노동운동 진영에 족쇄를 채워 꿈쩍 못하게 하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靑개편 이달 중순... 개각 이달말 거론

■ 이대통령, 세종시 부결로 인적개편 속도내나

세종시 수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되면서 여권의 인적 개편 시기가 앞당겨지고 폭도 확대될 전망이다.

지난달 30일 여권 핵심 관계자는 "파나마를 방문하고 있는 이명박 대통령이 멕시코 방문까지 마치고 다음달 3일 귀국하면 정경길 대통령실장을 중심으로 한 청와대 인사비서관실에서 마련한 인사안을

적극 검토하면서 개편 작업은 가속도가 붙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지난 14일 이 대통령이 라디오연설에서 인적개편을 예고했을 당시 초기 단계에 불과했던 청와대 참모진 개편작업은 상당히 진전된 것으로 전해졌으며 이르면 이달 중순에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당장, 국정기획, 홍보, 정무, 민정

수석 가운데 일부가 교체되고 일부는 청와대 내부 이동이나 정부 부처 장관급으로 자리를 옮길 것이라 말이 오르내리고 있다.

대통령실장에는 기존의 임태희 노동부 장관과 이석재 KT 회장 외에도 백용호 국제청장, 정운천 전 농업수산물부 장관, 박형준 정부수석의 승진 기용설도 나오고 있다.

개각의 경우 8월 초순에 이뤄질 것이라 전망이 많았으나 최근에는

7·28 재보선 이전에 중폭 이상으로 단행될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역시 세종시 수정안 부결로 인해 정 총리의 거취가 최대 관심사지만 아직까지 교체설과 유임설이 엇갈리고 있다. 총리 교체가 이뤄진다면 개각 규모는 중폭 이상으로, 총리 교체가 되지 않는다면 중폭 이하의 개각이 전망되고 있다. 만약 총리가 교체된다면 호남 출신인 김덕룡 대통령 국민통합특보를 비롯, 강제섭 전 한나라당 대표, 김태호 경남지사, 박세일 한반도선진화재단 이사장, 심대평 국민중심연립 대표 등이 후보군으로 거론되고 있다.

/임동욱기자 tuim@

공무원

1차: 6월 22일 오후 3시~
2차: 6월 26일 오후 3시~

친구들과 함께 공부하고, 수강료도 할인 받아 합격하자!

특별이벤트 (수강료 50% 할인)

특별이벤트2 (수강료 40% 할인)

개강 7월 1일

PEET/ MEET/ DEET

의사학기 되는 학생안심제

의대대학 의석대학 의외대학

최종예상 문제풀이 기초이론만 토익/토플

개강 7월 5일(매주)

서울고시학원

1514-4530
sgs04.co.kr

MDPass 의학원

283-6453
mdpass.co.kr